

플 새뮤얼슨에서 앵거스 디턴까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시각서 본 경제와 삶



식탁위의 경제학자들

조원경 지음

일반적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은 일상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학문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경제이론은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오늘의 경제와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과이자 실물경제 전문가인 조원경 씨가 펴낸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은 불안과 불확실성, 불균형으로 대변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경제 안내서다.

책은 경제학의 대가 존 케인스가 2030년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표현한 예제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을 모티브로 시작한다. 케인스는 연내 삶이 생산의 시대, 소비의 시대를 지나 일과 여가 균형적인 삶을 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 식탁은 국가 간, 세대 간, 기업

간 불균형으로 지탱하기 위태로워 보인다.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이를 예언한 케인즈 이론이 일부만 맞지만 세계적으로 일자리 부족, 부의 불균형, 세대 간 갈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책에는 플 새뮤얼슨의 행복 방정식, 앨빈 로스의 매칭이론, 올리버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 사이먼 쿠즈네츠의 인구혁신론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이 재미있게 기술돼 있다. 21세기에 직면한 여러 도전들, 경제와 윤리 등 다양한 문제들은 수상자들의 명쾌한 논리에 의해 해부된다.

사실 경제를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외적인 문제가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경제 시스템 못지않게 정치, 사회, 문화, 제도, 교육 등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바람직한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

기술발전과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 가져다주는 명과 암을 조명하면서 미래사회의 방향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뱅크파커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3세기 산술혁명 이끈 수학자의 삶과 업적



수학자 피보나치

키스 데블린 지음

13세기 산술 혁명을 이끈 수학자 피보나치. 그의 삶과 그의 저서 '계산책'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 소개하는 책이 발간됐다. 미국스탠퍼드대학교 연구소 선임연구원 키스 데블린이 펴낸 '수학자 피보나치'는 현대 서구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피보나치의 삶과 업적을 조명한다.

피보나치가 등장하기 전 유럽 상인들은 수량 데이터를 로마 숫자로 기록했고, 계산을 하기 위해 꽤 까다로운 손가락 셈법이나 기계식 주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전문가만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

는 '계산책'이 등장한 이후, 유럽 전역으로 계산 교육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계산책'은 빌 게이츠의 PC,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1170년경에 태어나 1250년경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년기의 대부분을 피사에서 보냈다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당시의 명명 관습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사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보나치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보나치 가문의 사람'에서 유래한 별명이다. 이 별명은 역사가 가요 리브리가 1838년에 붙였다.)

피보나치의 천재성은 인도아라비아숫자 체계가 지닌 실용성을 꿰뚫어보고 효율적인 산술 기법들을 정리해 세상에 알렸다는 데 있다. 특히 '계산책'은 과학과 기술, 상업에서 도약을 준비하던 유럽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해나루·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색·정도전·정철·김시습...
조선이 사랑한 우리 漢詩

소화시평

홍만중 지음·안대회 번역



홍만중(1643~1725)은 17세기 국학의 대표학자이자 지식인이었다. 특히 시평(詩評)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우해(于海), 호는 현묵자(玄默子)다. 한양의 마포 한강가에 살면서 한평생 저술에 전념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 도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조선학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대대로 고관과 문인을 배출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홍주세(洪柱世·1612~1661)로 문과에 급제한 북영천군수를 지냈다. 서인이 주장하는 북벌론에 반대하고 정치적 소신을 지켰다. 조부는 홍보(洪寶·1585~1643)로 인조 원년에 정인계(鄭麟趾)였다.

그의 비평집 '소화시평'은 고대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우리 한시 가운데 기억해야 할 작품을 뽑아 품평한 책이다. 소화(小華)는 작은 중화(中華)라는 뜻이다. '중국에 버금가는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말이다.

또한 '시평(詩評)'은 시에 대한 품평을 이르는 말이다. 잘되고 미흡한 부분을 평가해 수준의 높고 낮음을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소화시평'은 우리 한시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골라 가치를 품평해 놓은 책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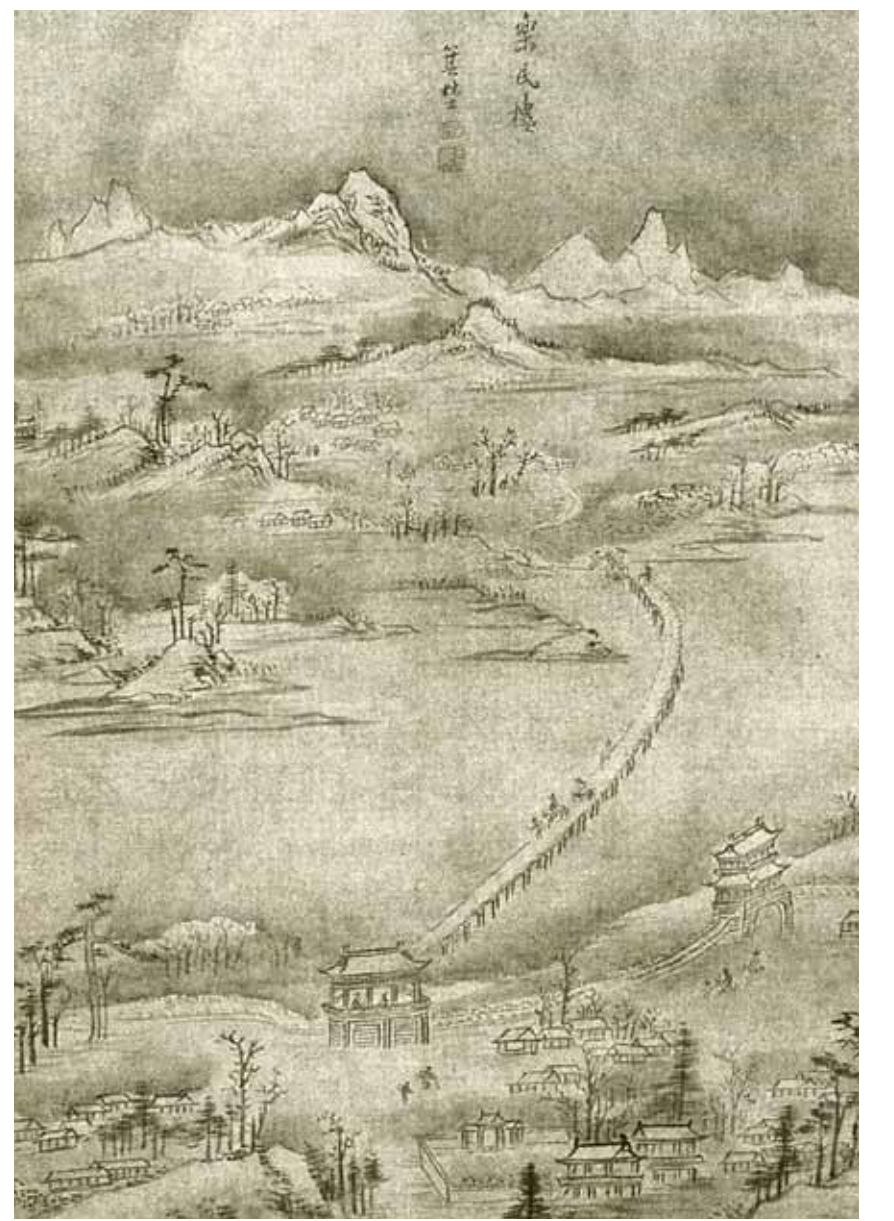
홍만중이 '소화시평'을 저술한 때는 그의 나이 34세인 1675년이었다. 1700년대 초 임경(任暉)은 "'소화시평'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많은 문사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감상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번에 출간된 '소화시평'은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가 번역했다.

안 교수는 이번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본과 선본을 참조해 정본을 확정했다. 1993년에 처음 번역본을 냈고, 2년 뒤 개정판을 출간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 발간된 이번 '소화시평'은 주석을 최대한 줄여 감상에 집중하도록 초점을 뒀다.

책에 수록된 시들은 당대의 임금과 신하, 문사에서부터 부녀와 기녀, 작자미상, 요절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조기 시의 정경', '이색의 제재', '단종의 영월 시', '효종의 만주 정벌 시', '정도전의 시', '김시습의 무제', '정철의 절창' 등 시대의 신분을 조월한다.

이 교수는 홍만중이 시비평의 언어와 문법으로 채택한 것은 품격비평(品格批評)이었다고 설명한다. 품격비평은 작가와 작품에서 배어나오는 특징을 한 글자에서 몇 글자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고려 중엽 최자의 '파한집' 이래 면면히 전해오는 방식으로, 홍만중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홍만중의 학문 성향



이방원의 '낙민루도'. 낙민루는 함경도의 대표적 명승으로 시와 그림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한다.

은 독특하고 신선하다.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성리학의 기반에 집착했다. 더욱이 당시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작동된 터라 자유로운 사유가 제한됐다. 하지만 홍만중은 규범을 뛰어넘는 활발한 사유를 견지했으며 도가적 사유와 박학을 근거로 조

선적 현상에 연구를 집중했다. 안 교수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개방적이었다. 요컨대 그는 17세기가 낳은 가장 선구적이고 본격적인 국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성균관대출판부·3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국서만 1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미니어처리스트

제시 버튼 지음

골든에이지를 구가하던 화려한 도시, 1686년의 암스테르담. 열여덟 살 시골 소녀 벨라 오트만이 성공한 상인 요하네스 브란트의 대저택의 문을 두드린다.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 사람이 가득한 신혼을 꿈꾸는 벨라의 눈앞에는 차가운 집안사람만 보인다. 여기에 매일 밤 집

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영국 최대 서점 체인 워터스톤이 꼽은 '올해의 책', '선데이타임즈'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존앤 롤링의 신작을 누르고 단기간 영국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한 소설... 영국 작가이자 배우인 제시버튼의 '미니어처리스트'를 소개하는 화려한 수사들이다.

소설은 행복할 기정을 꾸리고 싶은 여자와 결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했던 남자 주인공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다양한 관계와 억압적 시대 상황을 매개로 은밀하고 애절한 로맨스를 풀어낸다. <비치·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쉬운 그림 이야기



이미혜의 그림읽기

이미혜 지음

미술관이나 혹은 전시장에 가서 미술 작품을 들여다보자. 화가가 그림을 그린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작품은 당대에 갖고 있던 의미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면서 해석과 재해석을 요구한다. 수년간 예술사 연구와 저술 작업을 해

온 저자 이미혜가 평균적인 교양을 갖춘 미술애호가들을 위해 '이미혜의 그림읽기'를 펴냈다. SNS를 통해 3년여간 그림에 대한 글을 써온 저자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미술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자를 위해 쉽게 그림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각 주제별로 시대적 순서에 따라 그림을 배열했지만 예술 사조를 연대순으로 망라한 것은 아니다. 미술사조, 미술가, 역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중심축은 사회경제적 관점이다. <이숲·2만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스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